

“기업 눈치보라
청년 챙기라”

‘정년연장’ 또 물건너가나

정부 “정년연장 검토 안해...고용연장 추진”

부처내 이견...기업·세대갈등 부담 작용

“정년연장 문제는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당장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8일 인구대책을 발표한 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발등의 불’이 떨어진 한국 경제를 구할 대책이라며 내놓은 정부의 중장기 대응방안에 정작 가장 핵심

인 ‘정년연장’이 부처간 이견으로 문구조차 포함되지 못하자 ‘알맹이 없는 대책’만 나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제시한 계속고용제도와 함께 노인기준 연령 상향 등 민감한 과제 역시 도입 시기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서 정부가 비탄의 화살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통해 60세 정년 이

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단서 조건을 달긴 했으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가 정년연장 방식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년연장제도 도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계속고용제도가 정년연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정부는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한 바 없다”며 “다만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는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의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정년연장 문제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은 정부 내에서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전날인 17일 저녁 막판까지 다음 날 발표될 대책에 ‘정년연장’이란 문구를 넣을지 말지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전날 정년연장이 빠진 데 대해 “정부 내부에서 부처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정책 과제화되지 않았다”고 실정을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지난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차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됐다. 이전까지 정년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정년이 강제조항이 아닌 사업주의 노력에 해당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55세 또는 58세를 정년으로 삼아왔다.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정년연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때마다 정년연장을 가로막은 것은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와 비용부담을 걱정하는 기업들의 반대였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법개정 당시 정년연장이 청년 신규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가 있었으나 300인 이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수는 정년연장 시행 후인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비용부담의 경우 당시 정부가 병행해 실시한 임금피크제와 고용지원금 등으로 상쇄됐다.

정부의 이번 대책발표로 정년연장 문제는 또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시기가 문제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경우 결국 문제인 정부가 아닌 다음 정권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법제화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경우 정책이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데 대한 기업들의 생산성 하락 문제와 비용 부담 문제로 정년연장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이다.

정년연장 문제와 함께 노인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문제도 정부가 장기과제로 분류하며 단기내에 시행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4대 전략 중 마지막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은 만 65세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노인연령 문제는 지하철 요금 무료혜택과 같이 재정문제와도 직결된다. 무임승차권이 주어지는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60세로 정년연장을 한 것도 법제화를 마치는 데 20여년이 걸렸다”며 “정년연장 문제는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당장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검토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청년고용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정년연장 문제를 꺼내들 경우 기업부담으로 이어져 경제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중·일 LCC 현황

국가	LCC 수	인구 수
한국	9개	5163만명
미국	9개	3억2676만명
일본	8개	1억2718만명
중국	6개	14억1504만명

출처 ICAO, 통계청 장래인구, UN 세계 인구전망

LCC 난립 항공업계...못버티는 항공사 나온다

정부가 에어프레미아의 변경 면허 신청을 허용하면서 올해 3월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3개 항공사 모두 항공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로써 한국에서 비행기를 띄울 국적사는 11개까지 늘어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경영진 갈등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며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렸던 신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면허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에 올해 3월 신규 사업면허를 취득한 플라잉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항공사 3곳을 모두 품게 됐다.

가장 먼저 이륙 준비를 서두르

한국과 같다. 역시 인구와 국토가 한국보다 많고 넓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도 각각 8개, 6개로 한국보다 LCC 수가 적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 내 과당경쟁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이 같은 우려는 이미 기존 LCC들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대규모 누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스타 항공 외에도 기존 LCC 5개사는 올해 2분기 공급과잉과 환율 등 외부변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이 274

국내 LCC 9개로 늘어나...美와 동일, 日·中보다 많아

공급과잉에 LCC 적자난...항공시장 구조개편 가능성도

는 곳은 플라잉강원이다. 플라잉강원은 최근 1호기 도입을 마쳤고, 운항증명(AOC)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말 양양·김포·제주 노선에 비행기를 띄울 계획이다.

논란 속에 변경면허를 승인받은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1월말 AOC 신청, 9월 첫 취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LCC에 에어로케이도 최근 대표이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AOC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구 대비 LCC가 지나치게 많아 과당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한국보다 넓은 국토, 많은 인구 때문에 항공이동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LCC 수는 9개로

억원의 적자를 냈다. 제주항공이 적자를 낸 것은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20분기만이다. 진에어는 266억원, 티웨이항공은 258억원, 에어부산은 219억원의 손실을 봤다.

더 큰 문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일본 노선을 늘리며 몸집을 키워온 LCC들은 경제보복 이슈로 번진 보이콧 재팬 여파에 일본 노선 공급을 줄이고 있다.

일본의 대체제로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미 중·단거리 노선은 포화상태다. 여기에 내년부턴 신규 3개사가 본격 취항할 예정으로 공급과잉은 더 심화될 수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과수농가 지원 프로젝트 19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고객이 사과와 배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25일까지 전 점포에서 이른 추식으로 인해 추식 후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햇 사과(1개, 980원)와 햇 배(1개, 1980원) 다다익선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사과, 배를 10개, 15개 이상 구매 시 1개 당 가격이 각 100원, 200원씩 저렴해진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